



# 10kg 감량·마약 연기 등 ‘독한 열연’으로 ‘흥행 독주’ “독전, 씹씹하지만 외로운 영화”

★스타인터뷰 영화 ‘독전’ 조진웅

“마약 씹 소금 흡입해 괴로워  
열린 결말, 생각 많아져 좋아  
액션스쿨서 독하게 근육 키워

데일 적으로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거다. 정말 호흡 하나 할 때도 고민하게 되고, 환기시키면서 연기했다. 하지만 엔딩 부분에서 어떤 관객들은 허무하게 또는 배신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엔딩에서 류준열(락)의 ‘이제 어찌실건데요?’라는 말이 납득이 됐다. 결론이 안 나오는데 그게 희한하다. 계속 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왜 ‘뺨을’ 원호에 대한 전사가 별로 없다.

말하자면 원호에게 개인성을 줘야 하는데, 수정의 죽음이 트라우마가 돼서 잡아야 한다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어쩌다가 자전거를 탔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였고 ‘어떡할 거야? 설 거야? 탈 거야?’ 이러한 문제에 처한 인물 같았다. 어차피 영화는 거짓 말이고, 모든 영화가 개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린 결말이라 관객들이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실제 같은 마약 연기에 얽힌 에피소드

가 있다면.

코로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소금을 갖다 놔더라. 소금인 줄 모르고 흡입했는데 엄청 고통스러웠다. 마약하고 열추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과거 YMCA에서 마약 관련 공익 연극을 하면서 투약 정도에 따라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내성이 없는 원호 같은 사람일 경우 그 정도 흡입량이면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었다.

-‘해빙’ 때에도 감명하더니, 이번에도 엄청나게 살을 뺐다.

다이어트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가씨’ 때다. 그때 언미복을 이미 맞춰놓은 상태였어서 물도 못 마시고, 빼도 빼도 못했다. ‘독전’에서는 뛰어나고, 맞고, 때리는 장면이 많아 근육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또 몸이 버텨내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체력 기르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작년 한여름에 전남 영광 염전밭에서 촬영을 했는데, 워낙 더위에 약하기도 하지만 체력 때문에 지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액션스쿨에 들어가 독하게 운동을 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근육 만드는 걸 싫어한다. 어릴 때부터 연극 선배님들이 ‘배우가 표현하고 움직이는 데 한계가 생긴다’며 근육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대신 발레, 한국무용을



기본적으로 했다. 움직임이 한결 자연스러워지고, 표현하는 영역도 넓어진다.

-이해영 감독님은 현장에서 어땠나.

사실 ‘독전’의 가장 큰 반전은 맨 끝에 나오는 이해영 감독님의 이름이다. 현장에서 늘 모니터 보면서 좋아하셨고, 즐기면서 참여하셨다. 다른 건 몰라도 이해영 감독의 성품으로 이렇게 독한 영화를 보듬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감독님 이다 품고 안았기 때문에 ‘독전’이 나올 수 있던 것 같다. 만약 내가 감독이었다면 현장은 이미 파투났을 거다. (웃음)

-‘독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전에 ‘해빙’이란 영화는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던 영화다. 반면 ‘독전’은 굉장히 씹씹하다. 던져놓으면 혼자 잘 살 것 같은 아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외로움이 많고 여러 영화 같다. 사진/NEW

신정원 기자 sjw1991@metroseoul.co.kr

## ‘신과함께’ 후속편 8월 1일 개봉 확정

성주신 등장... ‘신과함께-인과 연’

지난 겨울 극장가를 강타했던 ‘신과함께-죄와 벌’이 후속편 ‘신과함께-인과 연’으로 올 여름 또 한 번 흥행 신기원을 예고한다. 국내 최초 1, 2편 동시 촬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영화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 ‘신과함께’ 시리즈가 ‘신과함께-죄와 벌’의 흥행에 힘입어 오는 8월 1일 다시 한번 관객을 만날 준비를 끝낸 것.

후속편 ‘신과함께-인과 연’은 한성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삼차사가 그들의 천 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여름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1편과는 달라진 저승 삼차사의 묵직한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신과함께-인과 연’에서는 저승과 이승을 넘



신과함께-인과 연 포스터. /롯데엔터테인먼트

어 저승 삼차사들의 과거를 잇는 대장정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세계 100개국이 국내와 동시 또는 8월 내 개봉을 예정하고 있다. /신정원 기자

## 추신수 ‘시즌 10호’ 홈런 폭발... 동점 2점포

텍사스, 오클랜드에 7-4 역전승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0호 홈런을 터트렸다.

추신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나서 4대 2로 뒤진 가운데 7회말 1사 1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2점 홈런을 만들어냈다.

시즌 10번째 홈런으로 추신수는 2년 연

속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선수로는 통산 최다 홈런 178개로 늘렸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4대 4 동점 홈런을 만든 뒤 8회말 승부를 뒤집어 7대 4로 이겼다. 4타수 1안타를 올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 2할 6푼 6리를 유지했고 12경기 연속 안타와 21경기 연속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에서 7회말 동점 2점 홈런을 터뜨린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원 기자

##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 새 옷 입고 컴백

제작사·창작진 등 새롭게 구성

내년 2월 26일~5월 19일 공연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가 2019년 2월 26일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 ‘ALL NEW PRODUCTION’으로 새롭게 돌아온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도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 셰익스피어 작품 다음으로 많이 읽힌 소설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본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베스트셀러다. 150여년 간 2억 부 이상 판매되며 오늘날까지 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탄생한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는 18세기 격동과 혼란의



‘두도시 이야기’ 티저 포스터. /한다프로덕션

시대인 프랑크 대혁명을 바탕으로 런던과 파리의 급변하는 사회상과 그 격변의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

를 담고 있다. 뮤지컬 대본, 가사, 음악을 모두 쓴 질 산토리엘로는 원작에 담긴 낭만적이고 시적인 요소들에 영감을 얻어 10년의 노력 끝에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런던과 파리를 넘나들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남자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녹여내 ‘사랑과 용서의 대서사시’로 완성했다.

새롭게 돌아오는 2019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는 ‘ALL NEW PRODUCTION’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제작사부터 창작진까지 모두 새롭게 구성된 프로젝트이다. 제작을 맡은 ㈜한다프로덕션의 한소영 프로듀서는 작품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원작자 질 산토리엘로를 오랜 시간 설득 끝에 작품 라이선스를 얻었다.

한편 ‘두도시 이야기’는 2019년 2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한다. /신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질 / 19:51

6월 7일  
음력 : 4월 24일

수도권 날씨  
**28~1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6/28, 동두천 16/29, 가평 15/30, 파주 16/27, 서울 18/28, 양평 17/29, 인천 17/23, 수원 17/27, 용인 17/27, 평택 17/29, 백령도 14/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